

# 민주당 '추경 불참 26人'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당 소속의원 26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불참 사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원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민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불참 국회의원의 전원에 대해

## 내일 최고위서 대응 방침 결정키로

## 원내대표단도 긴급회의...재차 사과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일 최고위에서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소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이 먼저"라며 "최고위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는 (최고위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모두가 느끼고 개별 의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전체 당 기강을 세우는 게 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오늘 어떤 최고위원도 징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추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사과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나 소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여당으로서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긴장하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언급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불참) 사유는 박 원내수석이 들고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당과 공유하고 개별의원의 문제로 가는 것은 아닌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이 들어온다는 과정이 전제가 됐다"며 "박편에는 (의원들의 참여를) 더 강하게 푸시를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의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반성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을 왜 믿었냐고 하지만 원내대표단의 입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파트너인데 불신을 전제로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많은 분이 (일정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상호 전 원내대표 계속 통합론 주장 의원식 "국민의당과 합당 동의하지 않아"

"지금 있는 민주당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드는게 우선"

의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론과 관련해 "저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질 때,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 (분당이 됐다)"라며 "그래서 과연 국민의당과 합당 이후에 내부 갈등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숫자는 적어졌지만 동질성이 높은 정당이 돼

서 국민에게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 내기도 하고 추진해 나가기도 한다"며 "우선은 지금 있는 민주당을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높은 국민적 지지도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정당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 동안 인사정문화와 추경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 고민은 다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민의당과 통합으로 해결하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홍준표 "신4당 연합에 아당은 우리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제1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왼쪽 세번째) 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어해 최고위원, 정우택 원내대표, 홍 대표,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 홍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비롯해 본부총대와 1,2,3 중대가 신4당 연합을 하고 있다며 아당은 우리뿐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외유성 연수' 충북도의원 3인 제명 확정

자유한국당은 24일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도 유럽 국의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된 충북도의원 3인(김하철·박봉순·박한범)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로 떠나 불의를 빚었던 3인의 한국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당원 확보와 이분들의 활발한 당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당원들이 책임당원이 되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당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책임당원의 기준을 완화하는 의결이 있었다"며 "내용은 책임당원 자격 충족요건에 있어서 당비 기준은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당비 납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당원 확보와 이분들의 활발한 당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추경 표결 불참 민주당 의원 "미숙한 판단, 진심으로 사과" 한 목소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이 지연된 데 대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소명과 사과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김영호 의원은 "23일까지는 추경안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가 급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민의 대의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은 중국으로 출장을 가 해외 일정을 소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해외에 나와 있었"다며 "나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23일까지 추경안 본회의 열리기 어렵겠다 판단"

"생각 짧아...돌아보는 계기 삼고 이런일 없도록"

될 줄 몰랐는데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에 돌린 듯하다. 긴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깊이 반성하겠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기동민 의원은 "이유 불분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용무의 해외 일정이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귀국했다"며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다시

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도 "추경통과 과정을 되돌아봤다"며 "춧발 민심과 개혁에 대한 책임감과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홍의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 표결에 참석치 못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지만 공인의 자세는 아니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웃질을 여미고 근신하겠다"고 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내 여러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예 총리 등과의 면담이 사전에 성사됐던 만큼 국제 외교 관례상 방일 입장을 부득이 연기할 수 없었다"는 양해의 글을 올렸다.

## 정우택, 류석춘 만나 "야당안도 밀친"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만나 "야당안도 좋은 게 있으면 밀친이라 생각하고, 철학이 없는 게 아니니 좀 바 달라"고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류 위원장과 만나 "야당 의원들과 뭐만 한다고 하면 너무 철학 없는 정치인이라고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류 위원장이 지난해 작성한 '철학 없는 국회의원' 명단에는 정

우택 원내대표 이름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문제의원으로 총 89명을 꼽았으며 이중 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당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위 임명식에 참석차 당사를 찾은 류 위원장에게 "심부름 시킬 것 있으면 사기 시라"며 "어떻게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말했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